



인환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선지신앙
찾아서

인환

“내 안의 부처 환하게 드러내세요”

휘 바람새의 청아한 울음소리가 봄벌에
즐고 있는 경국사 마당을 가로지른다.
다람쥐 한 마리가 허탈하다는 듯이 딱딱나무 사이를 오고간다. 진달래꽃은 분홍빛을 아낌없이 풀어내고 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정오의 고요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꾸밈없이 자신의 생명력을 마음껏 드러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인환 스님의 거처에는 ‘환희담’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한지 바른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쪽 벽면에 소박하게 꾸며진 작은 법당이 눈에 들어온다.

“요즈음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야단들입니다. 먹는 것을 줄여 가면 되는데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살 빼겠다고 하니 어렵지요. 식탐만 덜어져도 육식이 반 이상은 줄어들 것입니다. 미식가고 채식가인 파세나디왕은 채식이 자꾸 불어나자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부처님은 왕의 고민을 듣고 나서 ‘자기 마음을 억제하여 식사량을 조절하여 적게 먹어야 한다. 그러면 괴로움이 적어지고 병은 덜 알게 되고, 늙음이 천천히 찾아와 오래 살게 된다’는 계승을 읊었어요. 그후 파세나디왕은 식사를 할 때마다 시중을 드는 아이에게 이 계승을 읊게 했어요. 소식을 하면 탐욕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부처님은 명리(名利)를 여의어야만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수행하기 힘들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머리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인환스님은 50년도 훨씬 넘는 세월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경전독송과 108배 그리고 참선

을 하신다. 3시간이 걸리는 새벽 예불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대중들과 같이 법당에서 예불을 올렸지만, 어느 날 새벽예불을 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 일이 있다. 이후로 자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안 된다는 생각에 스님의 방 한쪽에 법당을 마련하여 예불을 올린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구나. 일체중생이 부처님과 같이 지혜의 덕성을 갖추고 있건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말을

출하시니, 3시간이 걸리는 새벽 예불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대중들과 같이 법당에서 예불을 올렸지만, 어느 날 새벽예불을 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 일이 있다. 이후로 자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안 된다는 생각에 스님의 방 한쪽에 법당을 마련하여 예불을 올린다.

출하시니, 3시간이 걸리는 새벽 예불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대중들과 같이 법당에서 예불을 올렸지만, 어느 날 새벽예불을 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 일이 있다. 이후로 자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안 된다는 생각에 스님의 방 한쪽에 법당을 마련하여 예불을 올린다.

가려는 습성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일념만이 자리잡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화두이고 화두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즉 아미타불이 나고 관세음보살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절을 할 때도 일념으로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금생의 업장은 물론이고 과거에서부터 쌓여 온 업장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맙니다. 같은 절을 해도 그 근본을 알고 하면 업장을 녹아내리는 절이 되지만 모르고 하는 절, 소원만 비는 절은 자신의 욕심만 부추기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극락과 지옥의 차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동국대학교에 몸담고 있었던 인환 스님은 77살이라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법문을 청하는 자라려면 전국 어디를 마다 않고 찾아가다.

스님은 ‘지하철도사’로도 알려져 있다. 어디를 가시든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붙여진 별명이다. 스님은 수행자의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으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날마다 사는 것이 즐겁기만 하단다. 스님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 스님의 환한 미소도 여기서 연유하는 것이리라.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이 환하게 드러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을 일러주었다. 수행자로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평생을 살아 오셨기에 맑고도 청정한 기운이 느껴진다. ‘환희담’이라는 스님의 당호를 마음속으로 되뇌기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절로 번진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는설위원)



인환 스님은 1952년 부산 선암사 선원에서 원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통도사에 주석 중이던 지운 스님에게 보살계를 수지했다. 71년 일본 고마자와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74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끝냈다. 76년부터 77년 동안 캐나다의 토론토에 대각사를 창건해 해외포교에 나섰다. 82년부터 96년까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재직 기간 중 정각원장, 불교대학 학장,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동국대 명예교수이며, 일본 시즈오카대학 객원교수이다.

저서로는 <신라불교연구>, <한국 불교 계승사상연구>, <여기도망가는 달마 잡이래> 등이 있다.

선풍기 빨리 돌면 보이지 않듯 무념 가득하면 번뇌 사라져 근본 알고 절해야 업장 소멸, 소원만 비는 절은 욕심 부추겨

숨이지요. 불성이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기 있는 찾잔은 부처가 보아도 찾잔이요, 중생이 보아도 찾잔입니다. 이처럼 부처에게도 있고 중생에게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지 않는 눈, 귀, 코는 하나의 수단일 뿐 이 모든 것을 마음이 느끼고 보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바로 불성인 것이라. 그런데 진심과 망상이 합쳐진 것이 또 마음인 것이라. 망상으로 가득 찬 마음을 진심으로 돌리는 것이 견성입니다. 견성이란 여기에 없는 것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아닌 저기에 도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구비되어 있어. 불교를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우리가 원

서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티끌이고 망상이란다.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보이고 해결이 될 터인데 마음이 바깥으로만 향해 있어 남 탓만 하는 풍조를 안타까워하십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화두를 챙기고,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을 하면 되요. 하다말다 하면 안되고 오로지 바른 생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잘 안되더라도 계속해서 일 년을 하고 삼년을 해 봐요. 오로지 한 생각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일념만이 자리잡니다. 일념으로 가득 찬 무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풍기의 날개가 3~4개나 되지만 빨리 돌면 날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념으로 가득 차면 번뇌망상이 붙을 수가 없지요. 한 생각으로 돌아

新

초판 매진 감사합니다.
보다 완성도를 높인
『補正版 발매개시』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출판사: 미르아오

마음의대량과 법을 소상히 깨달아 고통을 벗어났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러는(새로운 밀레니엄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중에서-

이 책의 특징...

- 유식학의 현대적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의식개혁·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유식禪思想 釋明
- 자기발견·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편의성 제고

◆ 구입문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 총 판: (02)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 353-6142
- 010-2356-6142